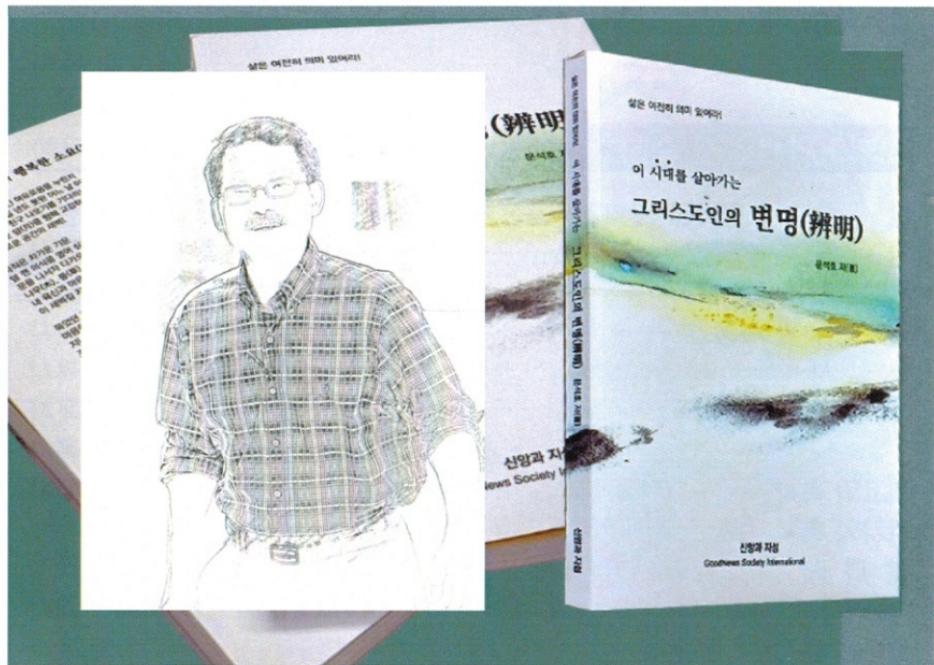


문석호 목사

사역 55 주년기념 및
저서발간 감사예배



- 일시 : 2022년 9월 25일(■) 오후 5시
- 장소 : 뉴욕베데스다교회 (김원기 목사 시무)

후원 :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희복 목사)
후원 : 뉴욕한인교역자협의회(회장 유상열 목사)

문석호 목사 사역 50주년 기념 및 저서발간 감사예배

1부 | 예배

사회: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기 원	사회자
찬 송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다같이
기 도	(샤론장로교회) 이규형 목사
성경봉독	계 22:12-13	사회자
특 송	김봉규 목사
설 교	충성의 상	(뉴욕교협 회장) 김희복 목사
찬송과 예물	490장 (주여 지난밤) / 베들레헴 영성수련원 건립을 위해	다같이
광 고	사회자
축 도	신현택 목사

2부 | 저서발간 축하

사회: 이준성 목사 (뉴욕양무리장로교회)

찬 송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다같이
기 도	(가나안입성교회) 김희숙 목사
저자소개	(말씀으로사는교회) 권기창 목사
저자소개 및 서평	(기쁨과영광교회) 권캐더린 목사
축 사	(순복음안디옥교회) 이만호 목사
	(빛과소금교회) 정순원 목사
	(뉴저지영광장로교회) 정광희 목사
회고와 축사	(한국에서)	(전, 고신총회장/인천, 예일교회) 천 환 목사
감사와 축사	(한국에서)	(진중교회) 민형기 목사
격려사	(뉴욕베데스다교회) 김원기 목사
	(뉴욕사랑의교회) 이재덕 목사
축하패 증정	(뉴욕교협 회장) 김희복 목사
	(총신 미동부동문회 회장) 정광희 목사
답 사	저자 문석호 목사
찬 송	488장 (이몸의 소망)	다같이
폐회 및 만찬기도	(계명장로교회) 황경일 목사

* 기념촬영

다함께

3부 | 만찬

67.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 (1)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 (2)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주 노하시고
저 푸른 바다는 웃자락이라
- (3) 저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하나니
저 푸른 바다는 웃자락이라
- (4) 질 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 없어라 아멘

508. 우리가 지금은

- (1)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잖아 가리니
이세상 있을때 주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 후렴: 주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흄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세상 널리전하세
- (2) 주예수 말씀이 온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생명 얻으라
이기쁜 소식 전하세
- (3)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예수 말씀이 이복음 전하라
우리게 부탁하셨네

490. 주여 지난 밤 내꿈에

- (1) 주여 지난 밤 내꿈에 봐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 후렴: 나의 놀라운꿈 정년 나믿기는
장차 큰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 (2)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 될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 (3)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을 참되리라

488. 이 몸의 소망 무언가

- (1)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예수 뿐일세
우리 주예수 밖에는 믿을이 아주없도다
- 후렴: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위에 내가 서리라
- (2) 무섭게 바람부는밤 물결높이 설렐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 (3) 세상에 믿던 모든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민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 (4) 바라던 천국올라가 하나님 앞에 뵈올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바로 서리라

요한계시록 22:12-13

-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
로 갚아 주리라
-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
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천 환 목사

- 인천, 예일교회 담임
- FIM 선교회 대표
- 전, 고신총회장)

오늘의 이 뜻깊은 날, 문석호 목사님께서 새로운 전환과 출발을 향하신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한 두 해가 아닌 지난 50년여 년의 긴 세월동안 한 치의 변함도 없이 주님의 좁은 길 영혼구원을 향한 복음의 정신으로, 청소년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긴 세월동안 교수로서와 이민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최선을 다하신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교수로 계시는 동안에도 연구와 강의라는 정해진 모습에 만족하지 않으시면서, 함께 FIM 선교회를 통해 중동 지역을 향한 선교(宣教)에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섬겨오셨고, 목회자와 신학생들 위한 '청교도 목회자 연구원'을 설립하여 그들을 향한 지도와 교육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공동체적 모임을 위해 기도원을 세우셔서 어린이,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을 향한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고자 정기적인 모임으로 애쓰셨으며, 더 나아가 중국 땅에서 목회하는 현지 조선족 목회자들을 고국으로 해마다 초청하여 그들을 교육하시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러한 남다른 소명과 열정을 가지신 목사님께서 세월의 흐름을 따라 '은퇴'하신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에 뭉클함을 감출 길 없었고, 또한 은퇴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후임자의 설교문제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계시다는 소문으로 너무나 속이 상했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70 세를 깃점으로 하여, '은퇴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출발과 전환'을 맞이하여 변함없는 소명과 열정으로 새로운 사역에 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목사님을 아는 많은 이들과 함께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16년 전에, 고국을 떠나 미국에서 이민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는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지만, 그러나 이민교회를 목회하시면서도, 그 특유의 남다른 열정으로, 어린이, 청소년에서 시작하여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정성을 다하셨고, 더 나아가 단순한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리더로서 현신을 하셨고, 특별히 선교(宣教)에 열정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뉴욕을 방문할 때마다 지켜본 저로서는 목사님의 그 변함없으신 모습에 늘 감동을 받곤 했지요! 이제 이러한 비전과 열정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모습과 그 열정을 늘 가까이서 나누고 지켜본 저로서는 문 목사님의 이러한 변함없는 열정과 비전에 늘 스스로 도전을 받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동안 마음에 간직했던 생각과 신앙과 정신을 담아 책을 출판하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이루시니, 이 또한 너무나 소중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문 목사님을 생각하면 늘 저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선교(宣教)의 열정과 교육(教育)에 대한 비전과 도전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제자화시키셨는데, 그 긴 세월이 훌러감에도 이러한 열정과 비전이 멈추거나 식지 않은 채, 그 연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 역시 목회자인 한 사람으로서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지난 과거를 모두 뒤로 하면서 목사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여 이 모든 일들을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마치 사도 바울의 심정과 다를 바가 없다고 느끼면서,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시는 그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저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교의 현장을 향한 목회와 교육, 그리고 미래의 일꾼인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향한 아름다운 사역이 이어지고 또한 목사님께서 그렇게도 소원하셨던 아름답고도 소중한 글들과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변함없으신 열정 속에 앞으로 계획하시는 많은 일들이 은혜 중에 이뤄질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선교와 목회와 교육의 현장에서, 그리고 글을 쓰시는 삶의 현장에서 목사님을 종종 만나 함께 많은 것을 나눌 것을 기대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강건하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지속되기를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민형기 목사



제가 문석호 교수님을 알게 되고 가깝게 모시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지 이제는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저의 신학생 초년시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제가 살아오는 동안 제가 가장 많은 것을 배웠고 영향을 입었으며, 지금도 간혹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별 때마다, 변함없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 넘는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은 목사님께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는 사실은 저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배운 많은 제자들 모두가 저와 같은 간증을 할 것입니다.

그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을 여전히 기억하는 것은, 교수님께서는 강의실에서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주말의 야외 수업을 통하여 들려주신 진지한 학문과 아름다운 인생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머리만을 키우는 교실에서의 수업만으로는 큰 사람이 못된다!'는 소신을 종종 말씀하시면서, 도심의 강의실 수업을 대신하여 교수님께서 직접 준비해놓으신 한적한 바닷가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밤늦게까지 신학과 철학, 사상과 인물들을 비롯하여 하나님과 우주에 관한 것들을 망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아마 그 누구도 흥내낼 수 없는 특이한 수업방식이었습니다. 그 때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님의 모습은 아마도 교수님께서 뉴욕 효신교회를 15년 간 목회하시는 중에도 변함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도심을 떠나 자연의 숲이 깃든 먼 산 속의 농장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있는 기도원으로, 때로는 저 면 선교지에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신 목사님의 행적에서도 잘 알려졌을 것입니다. 저희들을 가르치실 때부터 지금까지도 스스로 '교수'나 '성직자'의 모습을 나타내시지 않으시고, 조금의 꾸임도 없이, 그저 너무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털어놓으셨던 그 모습이 앞으로도 행하실 목사님의 또 다른 사역에 그대로 이어질 줄로 압니다. 여전한 젊음으로, 여전한 열정으로, 신학대학원에서, 선교지에서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사역에서 꼭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지난 날 목사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민형기 목사는 2000년대에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성직자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하고자 총신대에 편입학하여 총신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의 고든콘웰(Gordon-Conwell)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현재 군인교회인 진중교회 담임목사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으며, 총회 군목부에서도 봉사하며 군인들의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너무나 아쉽게도, 퇴임을 한 해 앞두고, 안식년 동안에도 쉬지않고 선교지에서의 현지 목회자 교육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 다니시다가, 어느날 갑자기 후임자와 관련되어 발생한 일로, 목사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 성도들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은 저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익히 아는 많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되고 말았지요.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목사님께서 말씀 못하시는 그 내막을 제가 당장 달려가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는 “아니네, 내가 떠날 때가 되어서 그런 모양이야!” 하시면서, “15년 동안 목회한 사람의 말에도 귀를 닫는 사람들인데, 낯선 나그네의 말을 듣기나 하겠나!” 하시면서 만류를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오해와 말도 안되는 오해와 배신에 대하여 너무나 마음 아파 병이라도 나셨을 법한데,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일을 통하여 “내가 그 동안 성도들에게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일일이 따져볼 일이 뭐가 있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허물로 돌리시는 것에서 저는 그만 할 말을 잊었지요!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앞당겨 시작하게 되었어!” 하시면서,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나! 그 모든 것을 꾸며대는 몇 안되는 그 배후의 사람들이 문제일 뿐인데!”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목사님께서 꿈꾸어 오신 그 다음의 일을 서둘러 시작하게 되었다고 오히려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에 오히려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뿐이지요!

목사님! 이제 70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조용히 사명의 막을 내리고 물러서는 시점에서, 목사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느덧 70세가 되시어서 지난 날을 잠시 회고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은퇴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꼭 제가 비행기를 타고가서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으나, ‘아니, 오시지 말게! 은퇴예배가 아니니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저는 문목사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끊임없는 도전의식”으로서 남은 삶을 사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몇 해전, 목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잠시 목사님 댁으로 문안을 드리러 갔을 때, 사모님과 다정하게 앉아서 미래의 말씀을 나누실 때, 그 때에도 몇 년 후에 있을 은퇴이후의 삶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자네도 목사가 되었다고 익숙한 자리에만 앉아있을 생각은 마시게!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혁해 도전을 하시게!” 하시던 말씀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알고보니, 그 당시 그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수님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번 모임의 주제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의 사역 50주년 기념 및 새로운 사역의 출발을 기념하는 저서발간 감사예배”라는 이 글귀가 그 얼마나 제게, 그리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지요!

목사님의 지나온 50여년의 사역과 또 여전히 변함없이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교수님의 여정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여전하기를... 멀리서나마 많은 제자들을 대신하여 부족한 제가 영원한 스승되시는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교수님, 늘 건강하세요! 제자 민형기 목사드림

인사와 감사의 말씀

한 개인의 삶이 한 사람의 고유한 것만이 될 수는 없기에, 저 자신의 글과 이야기로 저의 50주년 사역 기념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의 삶과 그 길이 어느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지난 날의 삶의 보람과 기쁨,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 목회자들의 일일 수 있기에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15년 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목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던 뉴욕효신교회의 많은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선배, 동료, 후배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앞으로의 사역은 지난날과 변함없이 영적 공동체 사역을 중심으로 선교지의 교육사역, 미래를 위한 저서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석호 목사 올림

광고

1.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힘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서를 맡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수고하고 동역해 오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가실 때 잊지 마시고 증정된 책을 가지고 가셔서 문 목사님의 앞으로 계속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